

서해해경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효과

상반기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도 안전사고 줄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역 내 올해 상반기 낚시어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지만 안전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낚시어선 이용객은 43만47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2만8204명보다 1.5% 늘어난 수치다.

반면 안전사고는 감소했다.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올해 상반기 23건으로 전년 동기 37건보다 14건(37.8%) 줄었다.

안전위반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17건으로 전년 73건에 비해 56건(76.7%)이나 줄었다.

낚시어선 안전사고 원인을 보면 '부유물 감김'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손상' 5건, '충돌' 4건, '추진기 손상' 3건, '침수 2건' 등이다.

안전위반행위는 '구명동의 미착용(선장위반)'과 '신분증확인무 위반(선장위반)'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해해경청은 안전사고 발생과 안전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줄어든 이유로 낚시업자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도입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과 집중적인 해상검문검색·단속 등을 꼽았다.

정영진 서해해경청 구조안전과장은 "TV 프로그램 인기 등으로 낚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매년 낚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여름 성수기 대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단속과 홍보 강화로 해양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

무안군, 전국 첫 주민세 감면...코로나 극복 동참

개인분 전액·사업소·종업원분 50%...10억1300만원 규모

무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21년도 주민세를 대폭 감면한다

무안군은 오는 8월 2021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1만1000원은 모든 세대에 전액

면제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50% 감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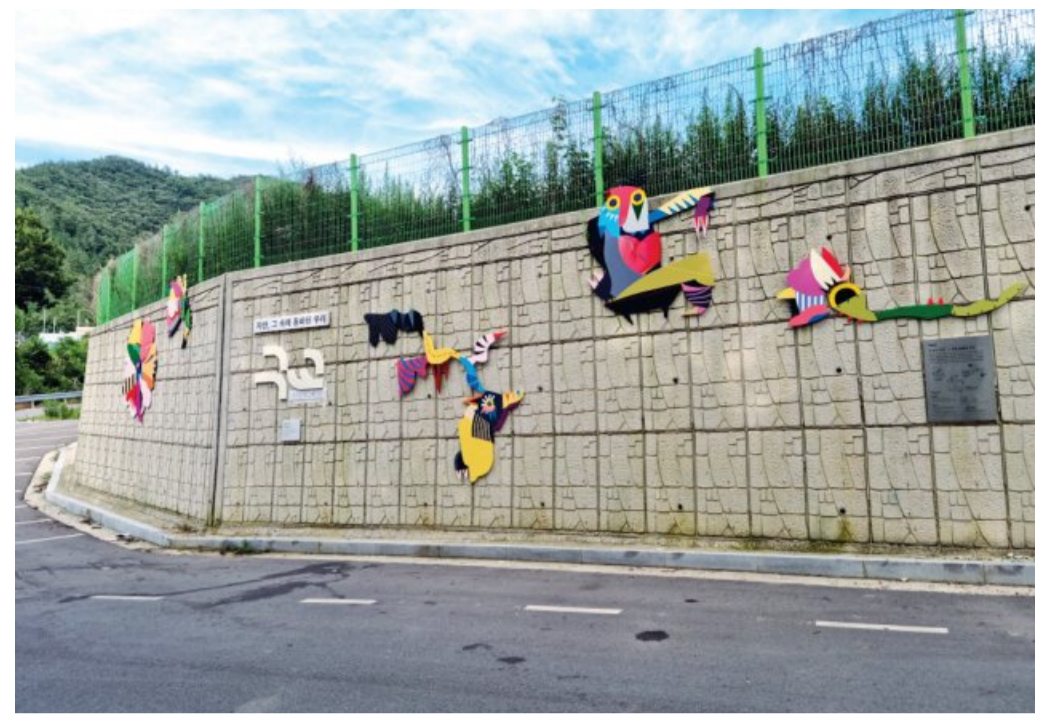
군은 감면코드 신설 등 주민세 감면준비가 완료되면 8월 초 군민 전체 4만 세대와 전체 사업장 5500곳에 감면통지서와 감면세액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금액은 10억1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무안군은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자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감산 무안군은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돕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삭막했던 해남 금강산 등산로 입구 '변신'

작가·주민 참여 입체 간판 설치

해남군민들의 휴식터 금강산 등산로 입구에 입체 간판이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해남군은 "전남도 좋은 경관 만들기" 최우수상 사업비를 활용해 해남읍 구교리 오백에 입체 간판을 조성했다. (사진)

입체 간판은 '구교의 자연, 그 속에 동화된 우리'를 주제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소통, 소통의 씨앗이 세상으로 비상하는 의미를 형상화했다.

간판이 설치된 위치는 해남 금강산 등산로 초입이자 구교마을의 중심부로 많은 주민과 등산객의 왕래가 잦은 곳이지만 미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인해 주민들의 환경개선 요청이 제기돼 왔다.

해남군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등산로 입구의 밝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내 처음으로 입체 간판을 설치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해남이 고향인 유흥관, 이철규 두 명의 작가가 작품을 구상했으며, 작품구성부터 설치까지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호응을 얻었다.

구교마을 이장 정두원씨는 "입체 간판이 설치되면서 구교리 옛 이름인 셋골처럼 새로운 마을로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주민들이 참여 의미 있는 작품을 설치해 더욱 뜻깊은 만큼 구교리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김준성 영광군수, 허호 전남도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의현 (사)전남문화예술협회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창단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교육지원청 제공>

영광초 고사리들의 화음 기대하세요

오케스트라 '이음' 창단 공연...학생 42명·교사 등 구성

영광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이음'의 창단식이 최근 학교 무명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음' 오케스트라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예산지원과 (사)문화예술협회의 약기지원으로 2021년 3월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결성된 42명의 학생들과 5명의 지도교사로 이루어진

협약4중주 오케스트라로 방과 후 활동을 통해 꾸준히 연습을 해왔다.

단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단식에서는 교사들의 축하공연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고선미 영광초등학교 교장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도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바란다"며 "이음이라는 이름처럼 중·고교에 진학해서도 예술적 성과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초 이음오케스트라는 앞으로 11월에 제1회 정기공연, 문화예술제공연, 영광교육청 '락무' 등 다양한 공연 기회를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lylee@

'비의 선물' 신안 가거도 폭포 감쪽 등장

검붉은 기암괴석 사이로 200m 수직 하강 '국내 최장'

물이 귀한 섬에도 폭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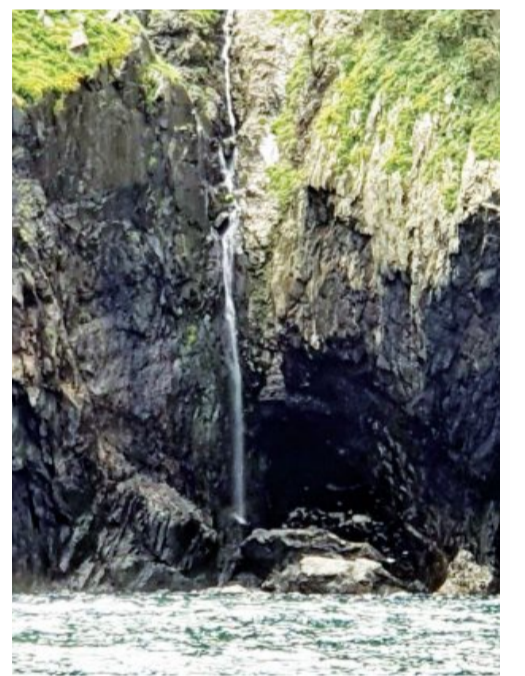
한반도 최서남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폭포가 최근 내린 비로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다. (사진)

200여m 높이의 절벽에서 떨어지는 이 폭포수는 기암괴석의 검붉은 바위를 배경으로 바다를 향해 수직으로 하강, 비경을 연출하고 있다.

평상시 수량 부족으로 폭포수가 흐르지 않아 보지 못했을 뿐이다.

해발 639m의 독실산으로 스며든 물이 절벽으로 떨어지며 생긴 이 폭포는 그 어느 폭포보다 멋지고 환상적이다.

주민들은 "이 폭포는 많은 비가 내릴 때만 볼 수 있는 가거도의 명물로 배를 타고 나가야 하므로 주민들도 잘 볼 수 없다"면서 "폭포수의 길이가 국내 최장으로 한 폭의 그림처럼 환상적"이라고 자랑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잔치

■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 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대출상담 환영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관리형 토지신착 사업비 대출 전세(임차)자금 대출

신축사옥 임대문의 환영

※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법전문점 등

※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총장로5가 입구)